개별작품 '자세히 읽기'로 집중 조명

작가론에서 작품론으로 새 흐름 보여줘… 진지한 논의 긍정적

최근 들어 한 작품에 대한 집중 조명작업이 활발하다. 비평집 또는 자료집 형태를 취하는 이런 작업은 한국 근·현대문학사에 우뚝 선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광장》《임꺽정》《태백산맥》 같은 소설에 대한 집중분석은 작가론에 치우친 그간의 연구 풍토에서 벗어난 새로운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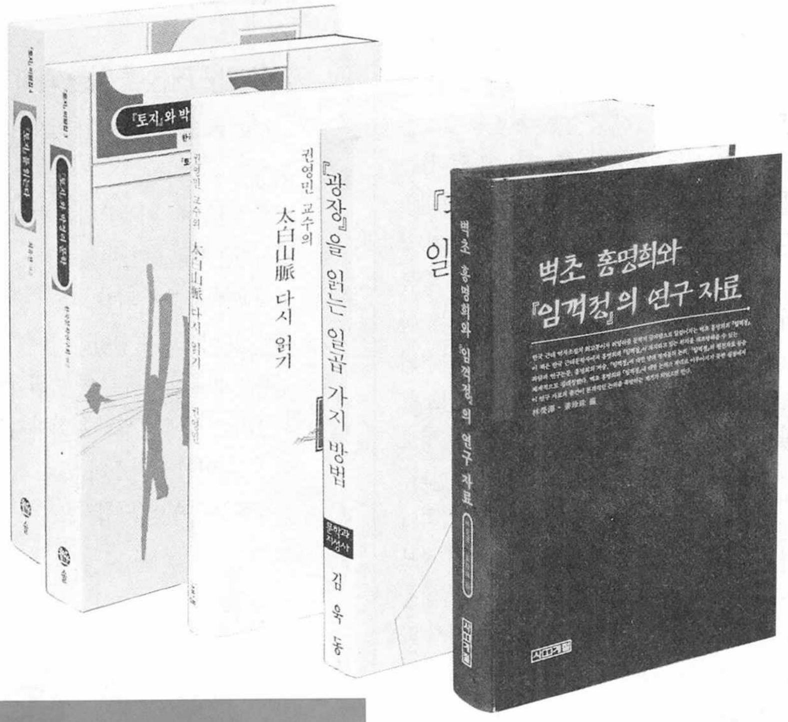
사진집·비평집·사전 등 관련서

'해방 이후 최고의 소설' 《토지》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관련서가 나오고 있다. 독자들의 독후감 모음·사진집·비평집이 나와 있고, 《토지사전》은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비평집은 네권이 나온 상태. 《한과 삶》(솔)은 완간을 맞아 그 이전에 발표된 비평 가운데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은 《토지》 연구의 기초자료. 완간 1주년을 기념해 묶은 《한·생명·대자대비》(솔)는 완간 기념 세미나와 젊은 평론가의 글 8편이 담겨 있다.

《토지》 완간 2주년을 맞아 솔출판사는 두 권의 비평집을 새로 펴냈다. 《'토지'와 박경리문학》(한국문학연구회 엮음)은 본격적인 학술집 출간을 염두에 둔 준비작업이고, 《'토지'를 읽는다》(최유찬 지음)는 장르론적 고찰에 중점을 둔 비평서.

《'토지'와 박경리 문학》은 《토지》의 소설사적 의의, 정신사적 연구, 시점 연구, 페미니즘적 연구 등 《토지》에 관한 밀도 있는 연구와 다른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박경리의 작품세계를 다뤘다.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에서 조정래 교수(서경대 국문과)는 토지의 주제를 '생존의 유구함'으로 본다. 〈'토지'에 나타난 작가의식〉에서 강문규 교수(강릉대 국문과)는 민족주의와 한(恨)을 토지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요체로 파악한다. 작가의 민족주의는 전통에 관한 애착과 함께 문화민족의 관점을 보여주고, 작가에게 한은 인간조건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

최유찬 교수(연세대 국문과)의 《'토지'를 읽는다》는 전작 비평서. 평론에서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다른 지면을 타지 않고 전작으로 책을 내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 더구나 2백자 원고지 2천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동서양의 문학과 철학체계를 넘나들면서 《토지》의 빅뱅현상이라는 우주론적 해석방법을 제시한다.



> 최근 들어 한 작품에 대한 집중 조명작업이 활발하다. 비평집 또는 자료집 형태를 취하는 이런 작업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우뚝 선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작가론에 치우친 연구풍토에서 벗어난 새로운 흐름으로서 진지한 작품논의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토지》에 대한 주요한 연구서지를 일별한 다음, 구조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토지》의 시간적 전개는 오행의 순서와 일치하고, 공간적 전개는 사상(四象)의 형태를 취한다. 《토지》에는 극의 형식처럼 많은 대화와 말씀이 동원된다. 행동이나 사건이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희곡 형식의 차용을 통해 행동이나 사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모든 생명의 공통된 특성인 영성체를 발현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문학과지성사)은 《광장》을 분석 모델로 삼은 문학연구방법론이다. '분단문학의 이정표' 《광장》을 매개로 역사주의 비평·형식주의 비평·심리주의 비평·사회학적 비평·신화 비평·구조주의 비평·포스트구조주의 비평 등 일곱가지 비평방법을 설명했다.

김욱동 교수(서강대 영문과)가 비평방법론을 개진하는 재료로 《광장》을 선택한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작용했다. 주제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독창적인 작품으로 '기념비적인 작품' 또는 '한국소설계의 우상'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는 것. 다음은 다의적이기 때문에 여러 비평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알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편과 중편의 중간에 속하는 분량도 기본 텍스트로 삼기에 무리가 없었다.

'올바른 해설'의 의미 커

《광장》은 어떤 방향에서든 접근이 용이하지만 역사주의 비평 방법의 분석틀에 잘 들어맞는다. 특히 원본 비평은 《광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분야. 무려 일곱번이나 개작을 했기 때문이다. 개작의 형태는 단어의 교체에서 플롯의 변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사계절)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최고봉' 《임꺽정》에 관한 자료집. 홍명희와 《임꺽정》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좌담과 연구논문, 《임꺽정》에 대한 당대 평자들의 언급, 《임꺽정》의 원천자료 등을 모아놓았다. 88년에 펴낸 《벽초 홍명희 '임꺽정'의 재조명》의 판을 살려 재판을 찍는 손쉬운 길을 마다하고, 새 판을 짠 출판사의 열의가 돋보인다.

《'태백산맥' 다시 읽기》는 권영민 교수(서울대 국문과)의 개인적인 소설읽기이자 《태백산맥》 관련자료집이다. 평론가 최원식 교수(인하대 국문과)와 작가 조정래씨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내용, 우익단체들의 고소·고발장을 자료로 수록했다.

권영민 교수는 〈'태백산맥'의 내면풍경〉에서 이 소설이 '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태백산맥》에는 숱한 죽음과 희생이 담겨 있고 영웅적인 인물들의 좌절과 패배가 있다. 어둠의 역사를 그려낸 《태백산맥》에서 우리는 부활과 창조의 기쁨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교수는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상과 그들의 언어에 주목한다. 이 소설에서 여러 계층에 속한 인물들은 주종관계·교우관계·인척관계 같은 것을 통해 상호대립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킨다. 토지문제를 둘러싼 주종관계는 가장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소설의 제1부 〈한의 모닥불〉은 이러한 계층의 대립과 갈등이 이념의 대립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표준어와 사투리의 대비를 통해 충돌하는 이념세계를 묘사하기도 한다. 권교수가 정리한 등장인물사전과 어휘목록은 일반독자가 《태백산맥》을 등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듯하다.

개별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있었던 일련의 작업들을 "작품에 대한 자세히 읽기 또는 올바로 해석하기"라고 의미를 부여한 최유찬 교수는 "문학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연구에 깊이를 더하면서 진지한 작품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장길산》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고, 최교수 개인적으로는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박상륭의 작품들에 관심이 많다. 《토지》 읽기도 두세 권 더 펴낼 계획이다. ——최성일 기자